

## 4대강 반대·대북정책 비판 이유로 단체장 사찰

MB국정원, 전 광주시장·남구청장·광산구청장·고흥군수·임실군수 대상  
이재명·송영길 전 시장 등 포함 야권 단체장 31명 사찰 뒤 “적극 제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찰한 광주와 전남, 전북 광역·기초 단체장 5명(광주일보 19일자 1, 3면)이 확인됐다.

지난 1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문건’에는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4명과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1명이 포함됐다. 호남지역 광역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포함됐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은 최영호 전 남구청장,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이었으며, 전남에서는 박병종 전

고흥군수, 전북에서는 강완목 전 임실군수가 사찰 대상이었다.

이들 가운데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제외하면 모두 야당이었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었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장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자치단체장으로 꼽았다. 또한, 좌파인물 중용을 통해 좌파의 제도권 진입 및 세력 확산을 지원하고 있고, 세금 급식 등 대정부 비난 여론을 확산하

고 있다는 점을 주요 국정 저해 사례로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에는 여론의 차기 대선 주자와 당권 주자들도 여러 포함됐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와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김두관 국회의원도 이번 사찰 문건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4대강 사업 반대 지원과 좌파 문화예술 단체 적극 지원 등 좌파단체 편향 지원이 주요 국정 저해사례로 꼽혔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반대, 대북정책 비판,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대 등을 통해 대정부 비난여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전남 출신으로 당시 인천시장을 지냈으며 더불어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국회의원

도 국정원 사찰 대상이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흔들기,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국책사업 반대활동 선동, 인천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차별 등 대정부 불만 여론 조성, 중복 인물 대거 기용과 보수진영 내분 조장 등이 사찰의 이유였다.

국정원은 이처럼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좌편향 행적 등 이념적 성향을 보인 일부 야권(무소속 포함) 지자체장 31명(광역단체장 8명, 기초단체장 23명)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사찰한 뒤 이들을 적극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문건은 야권 지자체장 31명을 분석한 ‘총론’과 개인별 주요 국정 저해 사례 문제를 나열한 ‘붙임’ 부분으로 구성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MB국정원 사찰 호남 단체장

강운태 전 광주시장  
최영호 전 남구청장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박병종 전 고흥군수  
강완목 전 임실군수

### MB국정원 사찰 주요 정치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  
송영길 전 인천시장  
김두관 전 경남지사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일 화이자 백신 27일부터 접종

화이자 백신 11만7000회분 도착  
정부 “접종 후 1주일간 현형 금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26일 국내 반입돼 27일부터 접종된다. 이에 따라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종에 들어가고,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국내 유행 1년여 만에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확보한 백신 7900만 명분을 분기별, 연령층 또는 위험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 접종하고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확보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6일 화이자 백신 11만7000회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해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6일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첫 접종이 이뤄진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국민께서는 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물 백신’이나 ‘접종 거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자극적 용어를 써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백신을 정경의 소재로 삼는 일을 자제해 주시고 순조로운 접종에 모두가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며, 이를 분기별로 연령층 또는 위험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바로 위험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3개월 이상의 시차를 보면서 서서히 위험도는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방역 의식이 느슨해질 것을 염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차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매 회차 백신 접종 일로부터 7일 이후에 현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차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1주일 이후 2차 백신 접종 전까지 현형이 가능하며, 2차 백신 접종 후엔 다시 1주일 뒤 현형을 할 수 있다. 현형 지침은 오는 26일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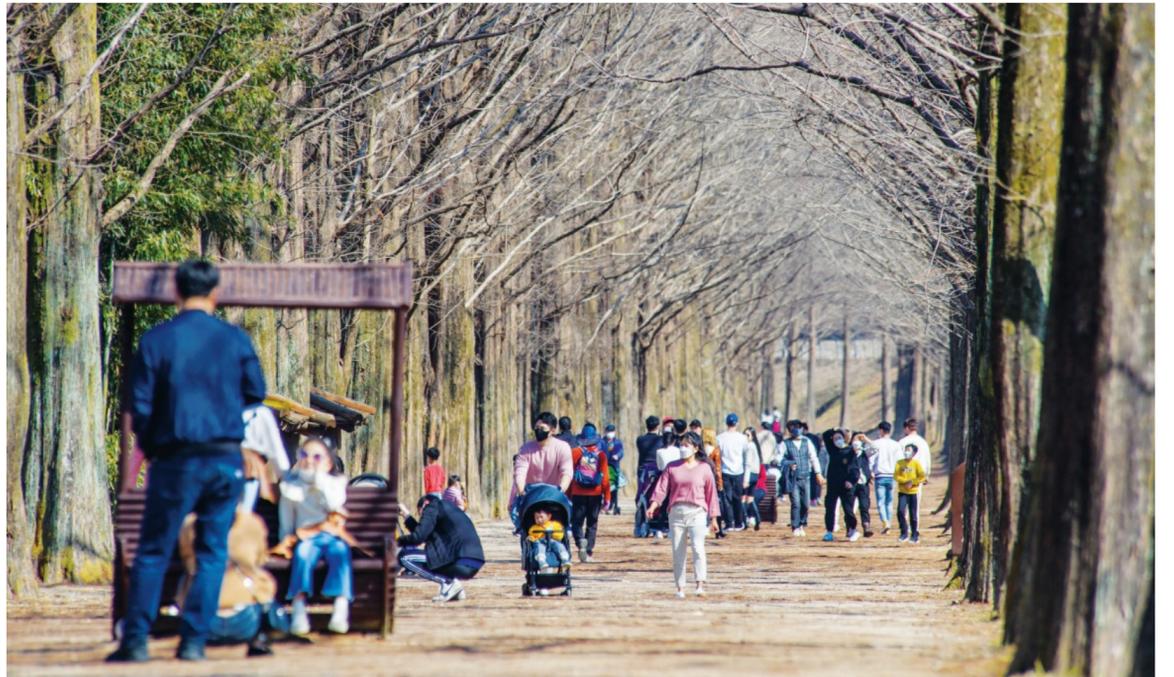
손반장은 “현재 감소세에 있던 3차 유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내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19의 그늘 “우리 좀 봐주세요” ▶6면

코로나 시대 전남 안심여행지 - 무안 탄도 ▶9면

윌리엄스의 조언 “양현종, 네 것을 해라” ▶18면



봄보다 더 봄같은 날의 상춘객 한파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1일,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따사로운 봄볕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설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

오는 26일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전남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설 연휴(11~14) 평소보다 늘어난 이동, 모임 등 접촉, 백신 접종 가시화로 인한 느슨해진 방역의식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남 누적 확진자는 830명이다. 무안 19명, 나주 10명, 신안 9명, 순천 7명, 여수 6명, 장흥 4명, 목포 3명, 광양 2명 등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에서 확진 판정자가 나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나

은 16명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다. 설 연휴 이동과 모임 등 접촉 증가에 따른 다수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방역당국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설 직후 신안군 지도읍 소재 침례교회를 매개로 1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무안군 해제면 신협 직원(전남 797명) 관련 감염은 목포 방문판매업 사장(전남 812명)과 직원(전남 811명)들로 연결되면서 무안군과 목포시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 '0'명을 유지해온 장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천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지속하고, 주말인 지난 19일 여수에서는 6명(전남 821~826번)의 확진자

가 나왔다. 무안에서는 주말인 19일과 휴일인 21일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수 확진 사례는 연휴 기간 가족 모임 및 다른 지역 방문한 일가족 5명과 지인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전남 시군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데다, 집단 및 연쇄 감염 사례 대다수가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감염 경로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지역 내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

광주에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가족 간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1일 오후 6시 현재 타 시도 확진자 관련 4명이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는 1989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웅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Not An SUV. An AMG.

Mercedes-AMG SUV Family.  
#PerformanceAdventur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Mercedes-AMG를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용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담양대로 516(수완동)  
주요 서비스센터 (062)292-2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마동로 609(만남 2동, 유수촌동) / (062)961-0099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암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55kg, 지동력 4륜,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로연비 9.6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12g/km)  
Mercedes-AMG G 63 (배기량 3,992cc, 공차중량 2,605kg, 지동력 4륜, 복합연비 5.7km/ℓ, 도심연비 5.4km/ℓ, 고속도로연비 6.3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319g/km)  
Mercedes-AMG GLA 45 4MATIC (배기량 2,000cc, 공차중량 1,750kg, 지동력 4륜,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로연비 9.6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12g/km)  
\* 본 연비는 프론트엔드에만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